

초록번호 14-4

제 목	국 문	광명 치매관리 모형개발 I- 광명시 거주노인의 치매 유병률		
	영 문	Prevalence of dementia in the elderly of an urban community in Korea		
저 자 및 소 속	국 문	김동현 <sup>1</sup> , 나덕렬 <sup>2</sup> , 연병길 <sup>3</sup> , 강연옥 <sup>2</sup> , 민경복 <sup>1</sup> , 이수현 <sup>1</sup> , 이수경 <sup>1</sup> , 표옥정 <sup>4</sup> , 이상숙 <sup>4</sup> , 이미라 <sup>4</sup> , 박찬병 <sup>4</sup> , 배상수 <sup>1</sup>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sup>1</sup> , 정신과학교실 <sup>3</sup> , 삼성의료원 신경과 <sup>2</sup> , 광명시 보건소 <sup>4</sup>		
	영 문	DH Kim <sup>1</sup> , DR Na <sup>2</sup> , BG Yeon <sup>2</sup> , YW Kang <sup>3</sup> , KB Min <sup>1</sup> , SH Lee <sup>1</sup> , SK Lee <sup>1</sup> , OJ Pyo <sup>4</sup> , SS Lee <sup>4</sup> , ML Lee <sup>4</sup> , CB Park <sup>4</sup> , SS Bae <sup>1</sup> Depts. of Social and Prev Med <sup>1</sup> /Psychiatry <sup>2</sup> , Hallym Univ., Dept. of Neurology, Samsung Medical Center <sup>3</sup> , Kangmyung Health Center <sup>4</sup>		
분 야	역학	발 표 자	김동현	
발표 형식	구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0 ), 연구중 (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p><b>1. 연구 목적</b></p> <p>노인 치매환자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여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노인성 치매에 대한 예방적 접근전략의 개발과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노인에게서 발병하는 치매의 역학적 기초자료가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일부 유병률 조사가 수행되기는 했으나 주로 농촌 지역 노인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어 전체 국민 80% 이상이 도시 지역에서 생활하는 현재의 여건에 직접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 근교 일개 도시 지역(광명시)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유병률을 산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성 치매의 전체적인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p> <p><b>2. 연구 방법</b></p> <p>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치매유병률 산출을 위하여 외국에서 수행되고 있는 표준화된 치매유병률 산출방법을 적용하였다. 즉 1단계는 지역에서의 설문조사(K-MMSE)를 통해 대상집단의 인지기능을 파악하고, 2단계는 이들 중 일부를 인지기능 수준별로 층화하여 무작위 선정, 신경심리 전문가에 의한 신경심리검사와 신경과, 정신과 치매 전문의에 의한 확진검사과정을 통해 치매와 그 아형을 감별진단하였다.</p> <p>1997년 현재 광명시에 거주하는 전체 노인 약 16,000명을 거주지역별로 층화하여 10% 에 해당하는 1,599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1차 선별검사를 수행하였다. 조사과정에서 21명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129명은 부정확한 주소, 그리고 118명은 조사 시작전에 이미 타 지역으로 이사하였기에 실제 조사가능자는 1,331명이었다. 조사가능노인중 실제 설문조사에 응한 946명(전체 응답율은 71.1%)을 MMSE 점수에 따라 층화하여, 17점 이하군(206명, 21.8%)에서는 전수를, 18-23점군(218명, 23.0%)에서는 50%를, 그리고 24점 이상군(522명, 55.2%)에서는 8%를 무작위 선정, 총 356명을 대상으로 2차 신경심리 및 확진검사를 수행하였다.</p>				

신경심리검사는 삼성의료원 신경과에서 개발한 Samsung Neuropsychological Screening Battery(SNSB)를 이용해 수행하였다. 임상 확진은 정신과, 신경과, 그리고 신경심리전문가가 가급적 대상노인의 보호자가 동반한 상태에서 검사를 수행하였다. 진단과정은 상호 독립적으로 진행되었고, 최종 확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토의과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치매의 진단기준은 DSM-IV의 진단 척도를 적용하였다. 아형별 진단은 알츠하이머병의 경우는 NINCDS-ADRDA의 probable DAT 척도에 따르고, 혈관성 치매는 DSM-IV가 제시한 진단기준을, 그리고 알콜성 치매 및 복합 치매는 기타치매로 분류하였다. 끝으로 인지기능에 영향을 주는 타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 각종 혈청학적 검사와 가슴사진, 그리고 심전도 검사를 수행하였다. 최종적으로 확진 대상자 356명중 219명이 신경심리 및 임상 진단을 완료하였다(61.5%). 치매의 임상 중증도는 CDR(Clinical Dementia Ratio)로 평가하였다.

### 3. 연구성적

광명시 노인에서의 전체 치매 유병률은 12.2% 였고, 이를 1990년도 우리나라 인구센서스에 표준화하면 12.4%(95% 신뢰구간 10.3%-14.5%)였다. 남, 녀별로 연령 표준화 치매 유병률은 큰 차이를 보였고(남자 6.8%, 여자 15.2%), 65-69세군, 70-74세군, 75-79세군, 80세이상군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병수준은 각각 6.0%, 11.1%, 15.3%, 그리고 31.9% 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원인별 치매유병률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알츠하이머병 1.0%, 혈관성치매 2.8%, 그리고 알콜성 치매를 포함한 기타 치매가 2.3%(95% 신뢰구간 2.2%-4.5%)였고, 여자에서는 각각 7.1%, 5.7%, 그리고 2.4% 였다. 치매환자의 임상중증도 분포는 경중(CDR 1이하) 69%, 중등도(CDR 2) 27%, 그리고 중중(CDR 3)이 3% 였다.

### 4. 고찰

본 조사는 도시지역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방법을 통해 시도된 치매 유병률 조사이다. 본 연구의 최종 확진률이 62%로 다소 낮고, 임상 미확진군의 평균적 인지기능이 확진군보다 떨어지고, 이들 미확진군에서 치매 유병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기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12.4%의 유병률은 실제보다 과소추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하면 도시지역 노인의 치매 유병수준은 기존의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서 보고된 9-11% 보다 약간 높은 유병수준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도시지역의 경우 경도의 인지기능의 저하라도 농촌지역과는 달리 사회적 기능 수행에 문제를 초래함으로써 본 연구의 확진과정에서 치매 환자로 발견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한편 알츠하이머병이 혈관성 치매보다 유병수준이 높다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차이를 관찰할 수 없었고(5.0% vs 4.6%), 오히려 남자에서는 알츠하이머병이 혈관성 치매보다 유병수준이 낮은 것(1.0% vs 2.6%)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노인의 경우 여자보다 남자에서 뇌졸중에의 이환수준이 높다는 역학적 특성에 보다 부합된다고 하겠다.